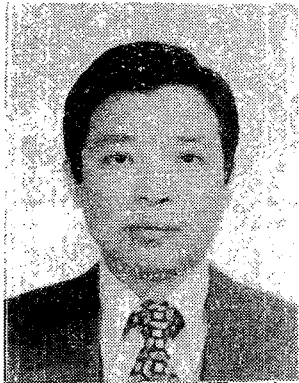




# 技術과 資料의 蓄積·活用



金亨徹  
(環境庁 計劃調整局長)

環境保全分野가 후발적인 우리로서는 “웅기장이의 神技”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6次경제개발부터는 기술과 자료의 축적·활용을 통한 환경보전대책이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

흔히들 識者는 우리가 현재 처한 立場을 “危機의 時期”, “變革의 時期” 또는 “跳躍과 좌절의 岐路”에서 暗中摸索하는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

세상물정 돌아가는 흐름속에서 매일을 살고 있지만 世態把握하는 五官이 아무리 發達하였다 하더라도 워낙 넓고 급하게 흘러돌아가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다. 더구나 한정된 틀에 박힌 生活을 하는 現代人으로서 는 가히 五官麻痺重症에 걸린 것 같은 氣分속에 살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識者들의 짚막한 現實診斷에 전적으로 同感하게 되는 것은 그 모든 診斷이 「끊임없는 自己鍛鍊을 통한 밝은 未來의 約束」을 그 內容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때, 紫雲 피어나는 靑銅의 火爐가 우리모두의 可視圈內에 제공된 일도 있었고 消費를 구가하는 政策이 讚揚받은 적도 있으나 세월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는 그것이 모두 努力없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제5차계획기간의 후반기 정리 단계에서 있으며 5차계획까지의 스스로를 反省하면서 6차계획을 꾸미는 일에 분주해 하고 있다.

反省이라는 것은 역시 自愧스러움이 앞서며 6次計劃을 향한 어떤 노여움 비슷한 鬪志가 發動되게 된다.

이 時點에서 “적어도 6차계획에서만은 알찬 環境保全對策이 이루어져서 脫汚染의 確信을 國民적으로 共感케 하자”는 覺悟를 다지면서 그 手段으로서 技術과 資料의 一貫된 蓄積과 活用の 重要性에 想到하게 된다.

明白히 他分野에 比하여는 環境保全分野가 後發的인 우리로서는 秘法을 감추는 웅기장이의 神技가 羨望보다는 批判의 對象이 되어야 하며 資料의 一貫된 蓄積과 活용을 통하여 環境보전이

라는 무너지지 않는 바벨탑을 쌓아올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한국민족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길이며 우리의 기술능력이 無限히 伸張될 수 있는 첩경이다.

1901년부터 시작한 노벨상은 벌써 그 수상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美國·蘇聯·英國과 같은 強大國은 말할 것도 없고 物理 및 化學賞 분야에서만 하더라도 이웃 일본은 에자끼(江崎玲於奈) 등 4명,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덴마크의 경우 모델슨 등 3명을 배출하였다. 세계인구의 1%를 가진 우리나라도 벌써 노벨상 수상자가 3~4명은 나와야 했을텐데 하는 소박한(?) 계산도 해본다.

노벨상이 뭐 대수냐하는 오기도 자랑스럽겠지 만 이불속에서 천하를 도리질한 듯 알아줄 금은

빈대 벼룩일 뿐이다.

이것 역시 벽돌 한장한장을 정성스레 쌓아올리듯 기술과 자료를 정리하고 다지면서 그 위에 새로운 知性이 이를 이어받아 한눈 팔지않고 피나는 벽돌쌓기를 이어감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확신한다.

많은 외국의 실례가 이를 雄辯하고 있지 않는가?

6 차계획에서 부터라도 우리는 後發國으로서의 잇점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환경보전의 험난한 길을 왕성한 鬪志로 헤쳐나가 여보란듯 세계만민에게 葉錢의 노벨상을 내보이고 世界 環境人에게 韓國에서 授與하는 葉錢環境賞 후보자추천을 받아보자. \*

